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본전시와 열리고 있는 전시실을 둘러 보고 있는 관람객들.

# 반환점 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순항'

개막 한달 누적 관람객 수 41만명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람객 호평  
다양한 체험·즐거거리도 반응 좋아  
관광굿즈 판매 디자인마켓도 인기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지나며 호평이 이어지는 등 순항하고 있다.

개관 한 달을 맞은 지난 7일, 전시장에는 때마침 연휴를 맞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연인끼리 친구끼리 삼삼오오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관을 둘러보며 다채로운 디자인의 세계를 즐겼다.

'Meet Design'을 주제로 11월 7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누적 관람객 수가 9일 오전 4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무국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당초 목표 관람객 45만 명의 90%를 웃도는 수준이다.

강승이 사무국장은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차별화된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가장 주안점을

을 뒀다"며 "50여개 국가 195개 기업, 국내외 디자이너 855명이 참여해 2700여 점의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행사 장소도 다변화했다. 본전시관 외에도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동구미로센터,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광주신세계백화점, 양립동 등 11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다채로운 이벤트가 디자인비엔날레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명예홍보대사 행사 초청 행사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몰려 성공 여부를 높였다. 또한 전시관의 블루보틀 커피트럭은 마니아,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체험과 즐거거리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별종위기동물' 스티커 컬링, '프렌즈 레이싱 VR'을 비롯해 '더 리틀 큐레이터', '더 리틀 큐레이터' 등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또한 도너츠를 모티브로 한 거대하고 맛있는 빈백은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즐기는 인기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체험교육 프로그램 '나는야 리틀 큐레이터'는 당초 2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4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 콘텐츠다.

전시장을 찾은 꼭 모 씨는 "실생활과 접목한 다양한 디자인 전시와 제품을 볼 수 있어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전시였다"며 "아이들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보니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사무국에서는 행사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미국, UAE, 호주, 일본 등 13개국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수출상담회에는 36개 지역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2166만불 상당의 수출상담 및 855만불 수출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쇄문화상품, 관광굿즈 등을 판매하는 디자인마켓(5관)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매출의 효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

송진희 디자인진흥원장은 "반환점을 돌면서 디자인비엔날레가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디자인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막걸리네' '다 때가 있다' 뭐하는 가게일까?

### 한글날 맞아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80개 선정

우리말의 매력을 한껏 살리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재미난 가게 이름으로 막걸리네, 다 때가 있다 등이 뽑혔다.

한국리서치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한글날을 앞두고 조사한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에서 총 80개의 가게 이름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2주간 약 4600개의 가게 이름을 접수한 뒤 서류 심사와 전문가 심사, 패널 1천명의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순위위를 매겼다.

그 결과,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1위에는 막걸리를 주로 파는 '막걸리네'가 뽑혔다.

가게 이름은 선호도 조사에서 100

점 만점에 76.0점을 받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와 3위에는 목욕탕인 '다 때가 있다', 족 전문점인 '족이집맛아'가 각각 올랐다. 두 이름은 '때', '족' 단어를 활용해 가게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름다운 해변과 여행자의 마음을 잘 담은 펜션 이름 '바라던바다'는 4위에 올랐고, 상징적인 표현을 잘 활용한 미술학원 이름 '손으로 그리는 세상'은 5위에 올랐다.

곱창이 주메뉴인 식당 '곱씹어봤소', 의류 수선 가게인 '꼬메꼬메', 과일 가게인 '달드라', 꽃집 '요꽃봐라' 등의 이름은 업종별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연합뉴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나랩 제공)

##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져 '니나노'

###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기획공연, 13일 보헤미안소극장

"니나노 날리리아 날리리아" 태평기 등에서도 접할 수 있는 '니나노'는 우리 흥을 표현하는 후렴구이자 받는 소리로 잘 알려져 있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대표 김현무)이 기획공연 '니나노(NINANO)'를 오는 13일(오후 8시) 보헤미안소극장에서 펼친다.

2023 공연문화활성화 기획시리즈 '문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연인데, 12월 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연명 '니나노'는 재즈피아노를 전공한 뒤 국악에 매료돼 '국악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정관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핸드페니스트 현정화, 퍼커셔니스트 이정우와 함께 올라 무대를 선보일 예정.

손으로 프리아펜을 두드려 연주하는 핸드

드펜과 타악연주(퍼커션)의 울림이 재즈, 국악 선율과 어우러질 것으로 보인다.

'sporty', 'F blues' 등 재즈 레퍼토리도 올려 퍼진다. 또 '속대머리', '비익련리' 등 창작 국악곡과 재즈피아노 버전으로 선보이는 '진도아리랑', 'Golden arcadia', 'Junta'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Soaring Bird', '너영너영', 'Autumn Leaves' 등도 연주된다. 당일 공개되는 히든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아티스트 세 명이 주고받는 만담과 음악 토크 등도 문턱 공연만의 특징, 여기에 공연장 문턱을 낮춘다는 공연 의도답게 프리드링크 한 잔을 곁들일 수 있다.

예매 및 문의는 국악콘텐츠 나랩 홈페이지 참조.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 대표 중견 원로작가들 '전우회' 추억을 담다

###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지난 1974년 창립한 전우회(회장 이신자)는 광주를 대표하는 중견 원로작가들로 구성된 미술단체다. 조규일 전 백민미술관 관장을 비롯해 3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여년 넘게 지역화단과 동고동락하며 저마다 개성적인 화풍을 일궈오고 있다.

전우회의 44회 회원전이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추억을 담다'.

전시장에서는 사계절의 자연풍광을 비롯해 인물, 꽃 등의 친근한 소재를 형상화한 다채로운 작품 33점을 만날 수 있다. 세월의 흔적과 그리움, 추억을 담고 있는 작품에서는 정겨움과 아련한 정서가 환기된다.

출품한 작가들은 조규일 교문을 비롯해 이우진 교문, 이신자 회장, 강대성, 국막례, 김일남, 박금례, 박화자, 서봉한, 오주현, 이기월, 정영신, 지연심, 최성배, 하인택, 황수무 등 모두 39명이다.

고운숙 작가의 '그대의 정원'은 소담하면서도 정취



김금란 작 '유유자적'

가 넘치는 정원을 그렸다.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오리 떼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고 화폭 중앙에 피어난 연분홍꽃들은 아련한 향기를 발한다.

이신자 작가의 '환희'는 경쾌하면서도 발랄하다. 그림에서 배어나오는 환희의 감정은 생의 즐거운 한 때를 동화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지연심 작가의 '꽃밭에서'는 자연에 대한 동경, 생명



고운숙 작 '그대의 정원'

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진다. 거친 듯 부드러운 화폭에 정치하게 묘사된 꽃잎은 지나온 추억을 반추하게 한다.

한편 전우회는 세종문화회관, 상록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등에서 정기전과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사생을 통해 회원들간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